

# KLPGA ★들 베트남 집결 2019시즌 티오프

### 효성 챔피언십 최혜진·오지현·이소영 등 톱랭커 출동 금호중앙여고 골프팀 창단멤버 김우정·최은송 데뷔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2019시즌이 시작된다. 해마다 앞당겨 치르는 KLPGA투어 2019년 시즌 개막전 효성 챔피언십이 7일부터 사흘간 베트남 트윈도브스골프클럽(파72·6,579야드)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는 KLPGA 출전자격리스트 상위 86명의 선수들과 베트남협회 및 해외선수 12명, 그리고 추천 선수 4명(프로 1명, 아마추어 3명)이 챔피언의 자리를 놓고 자웅을 겨룬다. 올해 상금랭킹 10위 이내 선수 중 1위 이정은(22·대방건설)과 2위 배선우

(24·삼천리)를 제외한 8명의 선수가 모두 출전한다. 오지현(22·KB금융그룹), 최혜진(19·롯데), 이소영(21·롯데), 김아림(23·SBI저축은행), 이다연(21·메디힐), 장하나(26·비씨카드), 조정민(24·문영그룹), 박민지(20·NH투자증권)가 모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 8명이 올해 기록한 승수는 총 13승으로 2018시즌 총 28개 대회의 절반에 육박한다. 상금랭킹 30위권으로 범위를 넓혀도 박결(20)과 지한솔(21)을 제외한 전 선수가 참가를 신청했다. 최혜진은 2019시즌 목표를 상금왕으로 정했고, 오지현도 올해 농천 대상과



최혜진 오지현 이소영 김우정 최은송

피언이자 KLPGA 투어 사상 최초 신인으로 개막전에서 우승했던 최혜진(19·롯데), 그리고 상금랭킹 3위 오지현이다. 최혜진은 2019시즌 목표를 상금왕으로 정했고, 오지현도 올해 농천 대상과

상금왕 타이틀을 차지하겠다는 각오에서 뜨거운 대결이 예상된다. 신인왕을 노리는 루키들의 경쟁도 시작된다. 지난 시즌 드림투어를 통해 정규투어에 안착한 상금왕 이승연(20·휴온스)

과 2018시즌 2승에 힘입어 상금순위 2위를 기록한 이가영(19·NH투자증권), 그리고 국내 72홀 최스타 기록(29연더파 259타)을 보유하고 있는 박현경(18·하나금융그룹)까지 총출동했다. /최진화 기자

또 지난 11월 열린 시드순위전에서 1, 2위로 통과하며 골프 팬의 큰 관심 속에 정규투어에 데뷔하는 등갑내기 조아연(18·볼빅)과 임희정(18)도 데뷔 무대에 나선다.

금호중앙여고 골프팀 창단 멤버인 김우정(20·케이엠제약)과 최은송(21)도 데뷔전을 치른다.

김우정은 2016년 8월 KLPGA 정회원으로 입회, 지난 6월 열린 'KLPGA 2018 한세·휘닉스CC 드림투어 7차전'에서 우승했다. 김우정은 올해 드림투어 상금랭킹 6위를 하며 20위까지 주어지는 정규투어 시드권을 획득했다. 최은송은 지난달 KLPGA 2019 정규투어 시드순위전에서 12위를 기록하며 시드권을 얻어 데뷔한다.

효성과 SBS골프가 주최하고 KLPGA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KLPGA투어 주관 방송사인 SBS골프, 다음카카오, LG유플러스, 옥수수, 올레TV를 통해 전 라운드까지 생중계된다. /최진화 기자

### '갑질 논란' 김경두 가족 "컬링에서 물러나겠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경북체육회 여자컬링 '팀 킵'의 호소문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이 사과문을 내고 "컬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김경두 전 부회장은 4일 발표한 사과문에서 "이번 경북체육회 소속 여자 컬링선수들의 호소문으로 인해 선수 본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큰 실망과 격정을 끼쳐 드렸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공개 사과했다.

그는 "특히, 선수들에게 저의 표현방식의 미숙함으로 크나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팀킵 선수들은 지난달 6일 대한체육회와 경북도, 의성군 등에 호소문을 보내 김경두 전 부회장과 그의 딸인 김민정 감독, 사위인 장반석 감독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폭로했다.

선수들은 김 전 부회장이 폭언을 듣는 등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회장은 "저와 우리 가족은 이 시점부터 컬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25년간 컬링만을 바라보며 가족과 친구들의 희생과 함께, 컬링의 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 부족함이 너무나 컸다"며 "저를 비롯한 우리 가족은 컬링에서 완전히 물러날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팀킵 지도자 위치는 물론 컬링계에서 떠나겠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김 전 부회장과 김·장 감독 부부는 팀킵 선수들의 호소문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경북도 등의 합동 감사를 받고 있다.

김 전 부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경북도는 지난달 19일부터 합동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는 오는 7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됐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막을테면 막아봐 토론토 랩터스의 가드 카일 로우리가 4일(한국시간) 캐나다 토론토의 스킵야크 아레나에서 열린 미국프로농구 덴버 너제츠와의 경기에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덴버가 106-103으로 이겼다. /AP=연합뉴스

### KBO 신인 지명·2차 드래프트 전면 재검토

서울·지방구단 입장차 크지만 '주고받을' 가능성

프로야구 선수 수급방식인 드래프트 제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KBO는 오는 12월과 13일 10개 구단 단장 회의를 열고 신인 1·2차 지명 방식과 2년마다 실시되는 2차 드래프트 방식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단장 회의에서는 KBO의 내년 예산을 심의하고 규약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지만 특히 신인 지명 방식과 2차 드래프트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상당수 지방구단은 현재 연구지별로 1명씩 먼저 뽑는 신인 1차 지명을 폐지하고 전면드래프트 재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팀들은 2년마다 시행되는 2차 드래프트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희망한다.

현행 2차 드래프트는 입단 2년 이하 선수를 제외하고 구단별로 40명 보호선수에 들지 못한 선수는 타팀에서 데려갈 수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 실시된 2차 드래프트에서 팀을 옮긴 선수는

총 117명이다. 팀별로는 두산에서 19명의 선수가 지명을 받고 빠져나갔고 넥센이 17명, LG가 16명으로 뒤를 이었다.

삼성·SK는 13명, 롯데 11명, KIA·NC 8명이고 한화·KT는 유출된 선수가 6명씩이다.

서울 연고 3팀에서 선수 유출이 많았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에 서울팀들은 2차 드래프트를 시행 시기를 현행 2년 주기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거나, 보호선수를 늘리는 방안, 입단 3년 차 혹은 4년 차까지 제외하는 방안 등 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구단과 지방구단의 입장 차이가 커 이달 중순 열리는 단장 회의에서 전면드래프트나 2차 드래프트 규정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KBO 관계자는 "서울팀과 지방팀이 '전면드래프트를 실시하되 2차 드래프트 규정은 완화' 하는 식으로 양측이 원하는 바를 주고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아시안컵 앞둔 벤투호 생존경쟁 시작됐다

조기소집 명단 23명 발표...11일 울산서 훈련  
광주FC 나상호 승선 조영욱·한승규 첫 발탁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에 조영욱(서울), 한승규(울산) 등 총 4명의 새 얼굴이 합류했다.

대한축구협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대비 조기소집 명단을 발표했다.

총 23명의 선수 중 눈에 띄는 이는 조영욱이다.

20세 이하 축구대표팀 등 각급 대표팀을 거친 조영욱은 이번 조기소집 명단에서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다.

올 시즌 K리그 영플레이어상을 받은 한승규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안게임 최종 엔트리 탈락의 아픔을 딛고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에 승선했다.

이밖에 전북 미드필더 장운호와 수원 미드필더 김준형 등 1996년생 선수들이 대거 대표팀에 처음으로 합류했다.

조기소집은 국내 프로축구 K리그와 일본 J리그, 중국 슈퍼리그 등 아시아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다.

유럽파와 중동파는 최종 명단 발표 시 포함될 예정이다.

나머지 선수들의 면면은 이전과 비슷하다. 공격수 황의조(감바 오사카)는 이번 없이 합류했고, K리그2 득점왕 나상호(광주)와 포항 김승현, 인천 문선



한국축구국가대표팀 벤투 감독

민이 공격라인에 이름을 올렸다. 부상 여파로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에 출전하지 못한 황인범(대전)도 소집 명단에 포함됐다.

부상에서 돌아온 김진수(전북)는 지난 3월 부상 이후 약 9개월 만에 대표팀에 합류했다.

대표팀은 11일 울산에서 소집해 국내 전지훈련을 소화한다. 이후 최종 엔트리 23명을 확정된 뒤 22일 아시안컵이 열리는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광희(가운데)는 지난 2일 홍콩 선양센테리얼파크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18 홍콩 아시아오픈 국제유도대회 -81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 전국체전 전남 대표 이광희 금빛 낭보

2018 아시안오픈 홍콩 유도대회 남자 81kg급 우승

전국체육대회 전남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이광희(용인대학교 2년)가 2018 홍콩 아시아오픈 국제유도대회 -81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광희는 지난 2일 홍콩 선양센테리얼파크 스포츠센터에서 폐막된 대회 남자부 -81kg급 결승에서 일본의 후부에게 지도 반칙승을 거두고 대망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순천공고 2학년 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전국무대를 주름잡았던 이광희는 올해 제23회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남자부 -81kg급에서 대학 진학후 처음으로 1위를 했고, 이번 국제대회에서도 우승 소식

을 전했다. 소매들어머어치기 등 손기술과 체력이 뛰어나 '제2의 김재범'으로 통하는 이광희는 올해 청소년대표선발전 1위를 차지하는 등 대학무대에서도 꾸준한 활약을 하고 있다.

1회전에서 바트몽크(몽골)에 자신의 주특기인 소매들어머어치기로 한판승을 거두고 기분 좋게 출발한 이광희는 2회전서 이우라(이스라엘)에 맞아머어치기 한판승, 3회전서 아렌스블라(카자흐스탄)에 지도 반칙승, 4회전에서는 장(중국)에 머어치기 절반 지도 반칙승을 각각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최진화 기자



### 17세 소년 차준환의 위대한 도전

7~8일 시니어 GP 파이널 역대 한국 남자 1호 메달 노려

'17세 피겨 소년' 차준환(휘문고)이 한국 피겨 남자 싱글의 새로운 역사 만들기에 도전한다.

차준환은 6일(한국시간) 캐나다에서 개막하는 2018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남자 싱글 무

대에 도전한다. 쇼트프로그램은 7일, 프리스케이팅은 8일 진행된다.

지난 시즌 차준환은 부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15위에 오르면서 한국 남자 선수 역대 최고 성적표

를 받는 성과를 냈다.

차준환은 2018-2019 ISU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남자 싱글에서 두 차례 동메달을 목에 걸면서 한국 남자 선수로는 역대 처음으로 시즌 성적 최상위자 6명만 나설 수 있는 '왕중왕 대회'인 그랑프리 파이널 출전권을 따냈다. 한국 선수가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에 오른 것은 2009년 '피겨퀸' 김연아 이후 무려 9년 만에다. /연합뉴스